

목어

불안한 마음 다스리기

GNP 1만불 시대, 그러나 IMF가 활귀고 가면서 만연된 불안한 마음은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럽다. 수많은 실직자, 노숙자, 결식아동 등의 고통, 경제불안으로 인한 구조조정, 정리해고, 워크아웃 등의 회오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이 시퍼렇다. 그 싸늘함은 시민들의 어깨에 짐으로 올라앉아 한숨소리만 하늘을 찌르고 근심만이 얼굴에 가득하다.

반면에 국민의 혈세로 각국에 인심쓰고도 모자라 오로지 싸움과 먹칠하기, 서로 겨루는 게 목하면서 으스대는 정치인과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어디 나라 출신인지 궁금하다.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지식층까지 오래된 불신공조와 이권다툼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가늘어질대로 가늘어져 목조차 가늘 힘이 없는 국민들은 또 언제 어떤 큰 일이 생길지 초조한 심정뿐이다.

이와 같이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교경>에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호트러진 마음은 마치 풀 그릇을 든 사람이 풀만 보고 좋아서 이리저리 날뛰기만 하고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고베 없는 미친 코끼리나 나무를 만난 원숭이가 같이 이리저리 뛰어 볼거리가 어려운 것과 같다. 이것을 빨리 깨어 방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잡지 못하면 모든 착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한 곳에 모아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기 마음을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이 제아무리 혼탁하고 마음을 어지럽혀도 끝까지(욕망)에 정신 팔지 말고, 고베 없는 미친 코끼리(불안)처럼 비틀거리지 말고, 나무를 만난 원숭이(초조)처럼 날뛰지 말고 욕망에 불타는 마음을 잘 달래어 안정시켜야 한다. 어떤 일든 마침내 자기 마음을 행복 받아 안정된 마음으로 정진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듯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때 반드시 불안한 시대를 극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직위원장·본지 논설위원)

기획연재

관람료 사찰과 포교

- ①포교는 없고 관람만 있다
- ②포교 '안하나' '못하나'
- ③투자없이 미래없다

수입중 일정비율 포교비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의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포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불교가 보유한 문화와 문화재등 포교자원을 심분 활용하는 것과 대면을 통한 권유 활동을 꼽고 있다. 이는 매년 국민의 절반 정도인 2100만명이 거쳐가는 관람료 사찰에서의 포교가 더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포교 전략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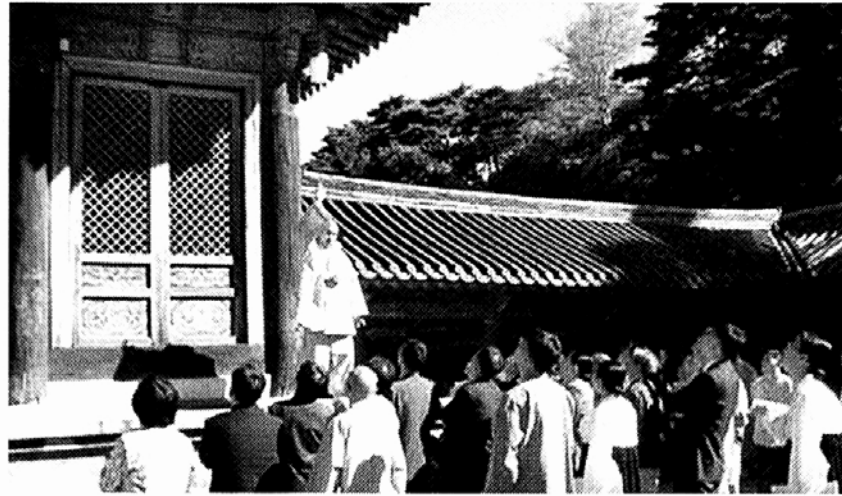
그럼에도 관람료 사찰의 경우 이러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전담부서와 소임자가 거의 없으며, 안내 팸플릿 비치 등 기본적인 자료와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반인들은 사찰을 찾더라도 그 속에 깃든 의미와 불교의 진리를 접할 수 있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승가대 류승무교수(포교사 회화과)는 '한국사회의 변동과 포교'라는 논문을 통해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효율적인 포교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절대절멸의 과제인 포교활성화를 위해 한국불교의 고유 특성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포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교전문가들은 포교비 책정, 전문포교사 배치, 팸플릿제공, 입간판 정비, 관람객 상담, 불교 체험프로그램 실시, 사이버포교, 영상포교실 설치, 캐릭터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교비 책정... 강원도 모사찰의 경우 포교비로 책정한 것이 2백만원에 불과해 리플릿 제작조차 못하고 있다. 관람료의 대부분이 일반경상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관람료의 일정액을 관람객 포교비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단차원에서 관람료중 일부를 포교비로 징수하여 포교사단 등 유관기관과 사찰을 엮는 포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포교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포교사 배치... 포교사단의 포교안내팀에 속해있는 포



◊불국사를 찾은 국제포교사들이 스님으로부터 법당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포교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입장권 대신 안내 리플릿”

교사를 관람료 사찰에 배치한다. 비원이나 도산사원처럼 1~2시간에 한번씩 일정시간을 정해 사찰안내시 설명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문포교사가 배치됨으로 인해 사찰의 관광지화에 따른 무질서와 소음 등 수행 방해요소도 제거할 수 있다.

▲리플릿 제공... 사찰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찰의 역할을 인식 시켜주는 차원에서 안내 리플릿은 필수다. 입장권을 리플릿으로 만들어 사찰연혁, 창건설화, 당우배치, 역대교승 소개, 문화재설명, 사찰예절을 수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입간판 대대적 정비

▲입간판 정비... 기존의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각 당우나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풀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문화재설명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불교적 의미까지 알려줄 수 있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관람객 상담... 신도중 단의 불교상담교육을 이수한 자

봉사자로 각 사찰별로 상담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불교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불자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 개설... 관람료사찰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들이 참여하며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발우공양, 연꽃, 불구 만들기, 불교의식, 다도, 탁본, 불교미술, 사찰음식 시연 등이 있다. 예불과 발우공양 다도등의 간편한 프로그램 2~3개를 연계하여 2시간 정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사이버포교...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이버봉사단을 구성하여 사찰소개, 강연회, 문화강좌 등 대중행사를 널리 알리고 사찰에 관심을 보였던 관람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정보제공서비스도 한다.

▲영상포교실 설치... 사찰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휴게실 겸 영상포교실을 마련해 사찰소개와 불교 홍보비디오를 상영하여 사찰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낸다.

▲소재지 제작 판매... 사찰의 역사와 보유 문화재, 역대스님들의 행장, 사찰 문화재 소개, 사찰 신형회 입문방법 그리고 불교기본교리를 수록한 소재지를 발간, 판매한다.

▲캐릭터 및 관광기념품 제작... 사찰의 문화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조형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당해사찰에 대한 인상을 깊게 한다. 또 그 사찰만의 독특한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하여 관람객들이 방문한 사찰을 오래도록 느낄 수 있게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체험프로그램 개설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한 북한 불교포교기금 마련등 관람료 사찰이 포교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교계 여론이다. 근본적으로 관람료가 사찰재정에만 대부분 쓰이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포교사업으로 회향돼야 관람료 사찰이 올바르게 설 수 있고, 사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다는 풀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관람료사찰이 '신형'과 1600년 한국불교 역사를 이어온 정신문화의 발원지와 회향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김원우·도필선·김주일 기자 (www.kim@buddhopia.com)

“정화다”-“분규다” 조-태 평행선

태고종 홈페이지 중단사 서술 '파장'

태고종 홈페이지의 중단사 서술을 둘러싸고 발생한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의 갈등 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종단이 자칫 감정 대립으로 치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이 9일 열린 총무회의에서 조계종측에서 문제삼고 있는 '조계종 폄하·비난'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태고종은 "조계종을 폄하·배척할 의도는 없다. 당시 폭력에 의해 사찰을 빼앗기고 스님들이 쫓겨난 것은 사실"이라며 "조계종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오면 양측에서 근·현대 불교사를 공동으로 검토, 사실인 부분만 게재하는 것을 조계종에 제안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태고종에서도 조계종 홈페이지의 50~60년대 불교사 서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대처승은 승려가 아니고..." "대처승 일부가 통감종단에 불복, 70년 태고종을 창설했다"는 내용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창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종단 명칭을 바꾼 것일 뿐"이라는 것이 태고종측의 입장이다.

조계종은 이 문제를 두 종단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실장 임철승은 10일 "조계종과 태고종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전제하면서도 "그쪽에서 쓴 종단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종단을 폄하하며 자기 종단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철승은 또 "우리의 의견을 문서로 달라는 것은 논쟁을 하겠다는 것이며, 그럴 경우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은 상대를 향해 직접 의견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종단의 입장차가 커 종단사 서술을 둘러싸고 '정화나 분규냐' 하는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만든 당사자들이 생존하고 있어 성숙한 토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종교대표 올내 방북 불투명

이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7대 종교대표들의 방북이 올해 안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올해 안 방북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장관급 회담, 언론사 사장단 초청, 한라산-백두산 교차 관광, 노동당 창건 55돌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른 데 이어 이제는 쇼고프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말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정치성이 상대적으로 덜은 경평축구대회를 열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11월경에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으로 예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술 방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연내 방북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종교인 방북 시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논설고문 : 고 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쇄인 : 김규석

인터넷·일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o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m.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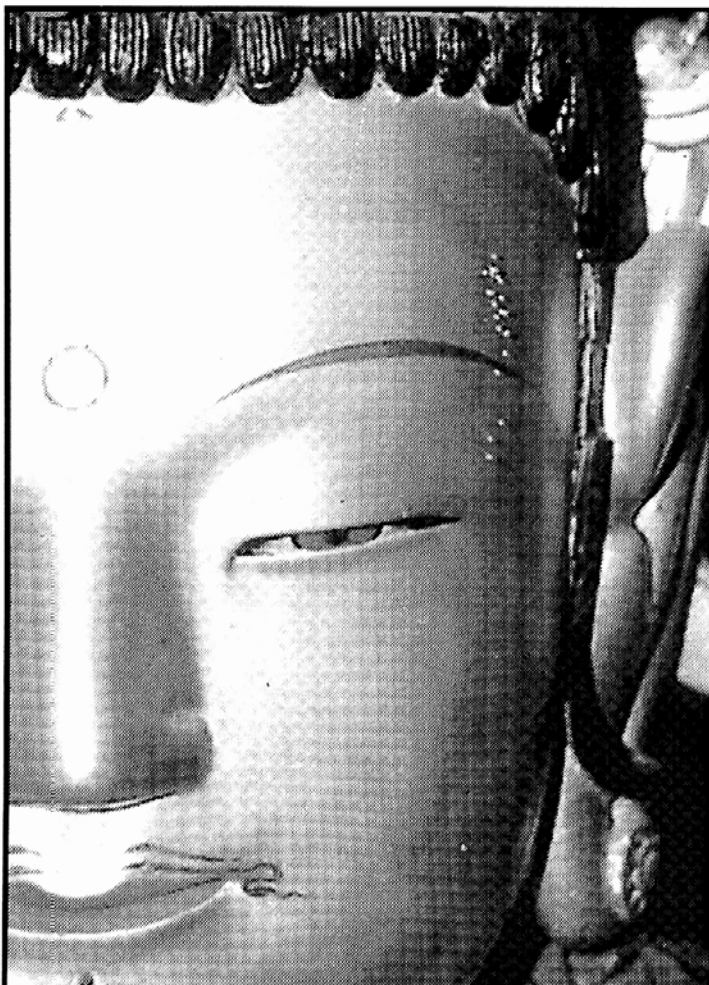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관세음 보살님 우담바라로 나투셨네 108일 친견 및 무차정진 대법회

청계산 청계사의 관세음보살님 상호(얼굴)에서 3,000년에 한 번 핀다(法華經)는 우담바라 꽃이 21송이나 피었습니다. 우담바라는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 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정진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라는 거룩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청계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담바라 친견 108일 무차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서정대 큰스님을 대법사로 원로 대덕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108일 동안 용맹정진과 친견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전국의 불자님들께서는 세세생생 만나기 어려운 이 법회에 동참하시어 참 불법을 깨닫고 속회 성불하는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입 제 일 : 불기 2544년 10월 17일(음, 9월 20일) 화요일 10시
- 회 향 일 : 불기 2545년 2월 1일(음, 1월 9일) 목요일 10시
- 동참문의 : 청계사 중무소 ☎(031)426-2348, 2221

대한 불 교 청계산 청계사 주지 김종상 합장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 ☎(031)426-2348 Fax(031)426-3666

